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손문금(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1. 문제제기

우리사회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는 맞벌이가족은 증가하는 반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인 홀벌이가족은 감소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주부부 중 '남편과 부인이 모두 일하였다'고 응답한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1995년 33.4%에서 2005년 35.2%로 1.8%p 증가하였고, 동기간동안 동부의 경우에는 26.7%에서 31.0%로 4.3%p 증가하였다. 반면 가구주부부 중 '남편만 일하였다'고 응답한 남편홀벌이가구는 동기간동안 전국적으로는 55.6%에서 46.3%로 9.3%p 감소하고, 동부의 경우 61.9%에서 49.8%로 12.1%p 감소하였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에 맞벌이가족이 어떻게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통합하고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역할을 수행·갈등·조정하고 있는지 분석·이해 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강이수 외, 2009; 홍승아 외, 2009; 마경희, 2008; 안정옥, 2007).

본 분석은 맞벌이부부가 직장과 가족 사이에서 경험하는 역할갈등이나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시장노동을 부부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맞벌이부부가 가족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즉 한국의 맞벌이 부부는 남편홀벌이부부와 비교하여 일상생활시간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함께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해마다 우리사회에서 이혼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1980년 23,662건에서 2009년 123,999건, 서울시 2008년 7,935건에서 23,920건, 인구동태통계),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1998년 58.8%에서 2008년 65.7%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이는 혼인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부부는 우애적이고 동반자적인 기대를 가지고 만족스러운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우애적이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러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식비율이 늘어나는 만큼(김현주, 2008) 그들은 부부의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관심이다.

다른 한편 누구에게나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한 행동에 소요하고 나면 또 다른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제약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시장노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맞벌이부부에게 가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분석은 맞벌이부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시장노동시간이 남편 홀벌이부부와 비교하여 어떻게 그들의 일상생활시간과 부부가 함께하는 공유시간 및 공유행동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글의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raw data)이다. 일상생활은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경험과 문제들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통계자료 중의 하나가 바로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며 (Robinson, 1997), 통계청은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생활시간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0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전국의 8,090가구에서 10세 이상의 가구원 40,526명의 시간일기¹⁾가 조사되었다. 이 중 20대에서 50대의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성된 맞벌이가구는 4,462가구, 8,924명, 남편 홀벌이가구는 3,464가구, 6,928명이 조사되었다. 이들은 모두 부부가 같은 요일 및 날짜에 조사되어 서로의 하루 공유시간과 공유행동을 비교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시간, 공유시간 및 공유행동의 의미

하루의 일상생활시간은 다섯 가지의 범주들-유급노동(paid work), 무급노동(unpaid work), 개인유지(personal care), 자유시간(free time), 이동(travel)-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유급노동시간은 시장에서 수입을 만드는 활동들에 할애된 시간이다. 무급노동시간은 음식준비, 청소, 세탁, 집관리, 가정경영, 쇼핑 등으로 이루어진 가정관리와 아이돌보기 및 그 외 가족돌보기 시간을 포함한다. 개인유지 시간은 수면, 식사, 씻기, 외모관리, 옷입기, 의료적 치료받기로 구성된다. 자유시간은 나머지 범주이며, 이동시간은 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걸어서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한 시간이다.²⁾ 이러한 시간 중 자유시간에는 여가로 명백히 수행된 활동들에 할애한 시간과 종교활동이나 시민활동과 같이 임의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 할애한 시간 둘 다를 포함한다(Robinson & Godbey, 1997).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간구분을 따르도록 하며, 자유시간을 여가시간의 시간사용범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함께한 사람의 의미는 ‘주행동을 아는 누군가와 책임을 함께한 시간량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함께한(공유된) 행동의 의미는 함께한 주행동을 의미하며, 동시행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행동(primary activity, main activity)이란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한 경우 주로 행한 행동이라고 응답자가 판단한 행동이다. 둘째, 책임을 함께 하였다는 의미는 함께한 사람, 공유행동을 함께한 사람의 의미에는 병행활동개념이 제외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단순히 동일한 공간에 부부가 함께 있었다고 하여 공유시간과 행동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유활동에는 게임, 여행, 산책 등의 활동들처럼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공유활동(joint activity)과 TV시청, 음악감상 활동들처럼 활동만이 함께 이루어지는 병행활동(parallel activity)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Othner, 1975), 통계청의 조사에서 ‘책임을 함께하였다는 의

1) 이하에서는 시간일기의 개수를 조사대상 인원 수(명)로 표기하고자 한다.

2) 이동시간은 연구에 따라 시장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자유 시간에 포함되어 분석되기도 한다.

미'에는 병행활동이 제외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공유시간을 계산해보았을 때 TV시청시간에 대한 공유시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활동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부부 두 사람이 동일한 활동에 책임을 함께하면서 참여한 행동과 시간으로 집안 또는 집밖에서 수행된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개인이 그 행동을 함께 한 행동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보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아이와 놀아주기'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부인과 함께 공유하여 책임진 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부인은 남편과 함께 공유하면서 책임진 행동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의 함께 보낸 공유시간량은 상이할 수 있다.

배우자와 공유한 공유행동의 시간유형은 가정관리, 가족돌보기, 교제 및 여가, 미디어이용, 식사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이 시간들은 부부가 그들의 시장노동 이외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당하고 어떤 행동을 함께 하는지 공유하는 시간으로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간들을 재분류한 것이다.³⁾ 즉 본 분석에서는 부부가 시장노동시간 이외에 이러한 각 시간유형별 행동에서 하루평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계산했다.

3. 맞벌이부부의 일상생활시간

맞벌이부부는 그들의 시장노동과 가족역할을 균형적으로 수행하는데 남편홀벌이부부에게는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남편홀벌이부부는 맞벌이부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남편홀벌이부부의 경우 오직 한사람의 노동스케줄의 요구에 의해서만 시간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맞벌이부부들 사이에서도 더 많은 시장노동시간을 가진 부부는 가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물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적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유일한 연구라 할 수 있는 이승미(1997)의 연구에서도 부인의 취업여부가 가족의 공유활동시간을 제약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다.⁴⁾ 또한 미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가지고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부부의 총시장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부의 가족돌보기 공유시간, 가정관리 공유시간, 가족과의 식사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Kingston & Nock, 1987).

이에 본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인 맞벌이부부와 남편홀벌이부부의 하루생활시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맞벌이부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시장노동시간이 그들의 가족역할 수행 및 여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남편홀벌이가구의 경우 남성의 하루평균 시장노동시간은 5시간 42분이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6시간 15분으로 성역할 분담이 확실하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맞벌이가구의 경우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이 4시간 46분으로 남성의 전체평균 5시

3) 가족공유시간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휴식, 의료활동은 공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면 활동은 성격상 공유의 의미가 매우 적다.

4) 이승미의 연구(1997)에서는 전업주부와 전문직·사무직·생산직의 취업주부가정 33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시간일기와 질문지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간 53분보다 적지만 무급노동시간은 맞벌이를 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하루평균 3시간 27분에 이르고, 남성들은 하루평균 42분에 불과하다. 이에 맞벌이가구의 여성은 시장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총의무생활시간에 있어서는 남편보다 하루평균 1시간 38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맞벌이부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의 시장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총의무생활시간은 6시간 57분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8시간 47분으로 남성과 1시간 50의 차이가 난다.

여가시간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1시간정도 남성이 더 가지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시간 20분 정도로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남편홀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1시간정도 여가시간을 더 가지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태는 모든 가구에서 무급노동의 대부분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고, 보살필 가족이 있는 경우 여성에게 더욱 많은 부담이 부가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상관없이 성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부가 모두 취업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적절한 무급노동분담에 대해 대다수인 83.9%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실제 맞벌이 가족 안에서 가족 일은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대부분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표 1> 가구형태 및 성별 하루생활시간량

(단위: 시간:분)

구 분	맞벌이부부				남편홀벌이부부			
	전 체		미취학자녀 있음		전 체		미취학자녀 있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시장노동시간	5:53	4:46	5:37	4:05	5:42	0:05	5:45	0:02
무급노동시간	0:42	3:27	1:20	4:42	0:44	6:15	1:11	7:54
가정관리	0:27	2:45	0:31	2:32	0:22	4:11	0:24	3:54
가족보살피기	0:15	0:42	0:49	2:10	0:22	2:04	0:47	4:00
여가시간	4:19	3:16	3:56	2:36	4:22	5:16	3:52	3:53
여가 및 레저	2:13	1:40	2:02	1:18	2:13	2:41	1:58	1:48
미디어이용	2:06	1:35	1:54	1:18	2:09	2:35	1:54	2:05
개인유지시간	10:46	10:34	10:52	10:43	10:52	10:45	10:55	10:44
이동시간	2:05	1:40	2:01	1:37	2:05	1:21	2:03	1:10
기타	0:15	0:17	0:14	0:17	0:14	0:18	0:14	0:18
소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자료: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다른 나라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과 한국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을 비교해보면 앞에서 살펴본 여성과 남성의 시장노동과 무급노동에서의 성별 격차와 여가시간의 실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 미국 두 나라의 15세 이상 국민의 하루생활시간을 보면, 한국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52분에 불과하여 2시간 31분 무급노동을 하는 미국 남성의 1/3수준이다. 이에 시장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의무생활시간의 성별 차이가 한국의 경우 45분인 반면 미국은 단지

6분에 불과하다. 이는 시장노동시간의 차이보다는 한국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미국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즉 시장노동시간은 한국남성의 경우 4시간 59분으로 미국남성의 4시간 16분보다 많은 것이다. 여가시간은 한국남성이 41분, 미국남성이 31분 정도 여성보다 더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한국 남성의 경우 시장노동시간이 미국보다 길지만, 무급노동시간은 미국보다 1시간 정도 적어서 의무생활시간이 1시간정도 적다는 점이다.

<표 2> 한국과 미국의 하루생활시간

단위: 시간:분

구분	한국(2009)			미국(2009)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시장노동시간	4:59	2:53	3:53	4:16	2:51	3:32
무급노동시간	0:52	3:43	2:21	2:31	4:02	3:19
가정관리	0:37	2:54	1:48	1:58	3:07	2:34
가족보살피기	0:15	0:49	0:33	0:34	0:55	0:45
학습	0:56	0:50	0:53	0:26	0:30	0:28
자유시간	5:50	5:09	5:29	6:03	5:32	5:47
TV시청	2:03	2:00	2:02	3:06	2:34	2:49
개인유지시간	11:06	11:06	11:06	10:30	10:49	10:40
기 타	0:17	0:19	0:17	0:14	0:16	0:14
소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자료: 한국-생활시간조사(2009) 원자료 분석, 미국-<http://www.bls.gov/tus>

주 1) 1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주행동 생활시간임

2) 각 행동시간에는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그럼 미취학자녀가 있는 유배우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따라 하루 무급노동시간이 미국과 한국 여성과 남성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⁵⁾ 한국의 전일제 취업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1시간 12분에 불과하여 2시간 48분 무급노동을 하는 미국 남성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족 안에서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여성에게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무급노동 중에서도 미국 남성은 음식준비, 빨래, 청소와 같은 가정관리시간이 1시간 34분에 이르지만 한국남성은 26분에 불과하여 많은 차이를 가진다.

<표 3> 미취학자녀가 있는 유배우 취업자의 하루생활시간

단위: 시간:분

구분	한국(2009)				미국(2006)			
	전일제 취업여성	시간제 취업여성	전업주부 여성	전일제 취업남성	전일제 취업여성	시간제 취업여성	전업주부 여성	전일제 취업남성
시장노동시간	4:44	2:33	0:02	5:47	4:50	2:35	0:04	6:03
무급노동시간	4:11	5:47	7:52	1:12	4:31	5:53	7:25	2:48
가정관리	2:17	3:01	3:53	0:26	2:32	3:11	4:11	1:34
가족보살피기	1:55	2:47	3:59	0:46	1:59	2:43	3:14	1:14
여가시간	2:20	3:09	3:52	3:50	2:42	3:08	3:53	3:30

5) 미국 생활시간과의 절대적인 비교는 '기타 생활시간'의 차이로 불가능 함

TV시청	1:03	1:23	1:46	1:30	1:23	1:30	2:06	1:52
개인유지시간	10:50	10:33	10:46	10:54	9:04	9:04	9:29	8:38
이동시간	1:38	1:41	1:10	2:03	1:23	1:18	1:04	1:25
기 타	0:17	0:16	0:18	0:14	1:30	2:01	2:05	1:37
소 계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자료: 한국-생활시간조사(2009) 원자료 분석, 미국-<http://www.bls.gov/tus>

주 1) 전일제 취업은 주당 36시간 이상, 시간제 취업은 주당 1시간~35시간의 노동시간을 가진 취업자임

2) 미국의 경우 기타 생활시간이 1시간 30분을 상회하고 있어 이 시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각 행동시간을 한국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4.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행동 실태

먼저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량을 살펴보면 맞벌이 남편의 경우 총가족공유시간이 116.59분이고, 홑벌이부부의 남편은 134.14분으로 맞벌이부부 남성의 공유시간량이 더 적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에도 맞벌이 부인의 경우 114.91분으로 전업주부의 146.65분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여성은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이 남편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남편보다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부의 가족공유시간량을 미국부부와 비교하여 보면 미국 맞벌이 부부의 남편은 총가족공유시간이 169.7분, 부인 170.3분으로 우리나라 맞벌이부부의 총공유시간과 비교할 때 약 53분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편홑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220.4분, 부인의 경우 236.8분으로 우리나라와 약 90분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ngston & Nock, 1987).⁶⁾

<표 4> 요일별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행동 실태-남편

구분	N	가족보살피기		가정관리		교체 및 여가		미디어이용		식사 및 간식		총공유시간		
		평균(분)	참여율(%)	평균(분)	참여율(%)	평균(분)	참여율(%)	평균(분)	참여율(%)	평균(분)	참여율(%)	평균(분)	참여율(%)	
맞벌이 남편	평일	2608	1.57	4.52	21.62	56.56	14.63	28.64	25.19	38.61	29.76	73.77	92.78	92.45
	토요일	919	2.01	4.57	27.75	60.72	28.07	37.54	35.60	42.44	44.08	81.28	137.52	95.87
	일요일	935	2.75	5.78	30.47	63.21	34.75	40.21	37.99	45.78	56.51	87.59	162.47	96.47
	전체	4462	1.90	4.80	24.73	58.81	21.62	32.90	30.02	40.90	38.32	78.22	116.59	93.99
홑벌이 남편	평일	2051	3.64	8.14	21.17	54.17	19.67	35.48	33.29	46.17	29.32	73.82	107.08	93.71
	토요일	717	6.19	11.16	27.64	58.86	37.60	45.75	41.55	48.40	50.30	85.63	163.29	95.82
	일요일	696	5.21	11.49	30.99	63.94	36.70	44.97	49.97	54.74	60.96	88.36	183.84	97.84
	전체	3464	4.49	9.44	24.48	57.10	26.80	39.52	38.35	48.35	40.02	79.19	134.14	94.98

자료: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6)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경우 병행적인 공유활동시간이 포함된 반면,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병행적인 공유활동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표 5> 요일별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행동의 실태-부인

구분	N	가족보살피기		가정관리		교제 및 여가		미디어이용		식사 및 간식		총공유시간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평균 (분)	참여율 (%)	
맞벌이 부인	평일	2608	1.52	4.29	16.85	43.33	15.05	28.22	23.14	36.89	36.53	84.05	93.08	93.63
	토요일	919	2.40	5.66	21.60	49.40	28.04	38.41	31.90	41.68	52.61	88.68	136.56	95.76
	일요일	935	2.82	6.20	24.14	49.09	32.16	37.65	33.24	43.21	62.15	90.48	154.51	96.26
	전체	4462	1.98	4.98	19.36	45.79	21.31	32.29	27.06	39.20	45.21	86.35	114.91	94.62
홀벌이 부인	평일	2051	3.35	7.56	19.11	45.93	19.92	36.71	31.93	45.54	47.76	90.88	122.07	97.90
	토요일	717	6.21	12.86	24.11	49.51	37.88	46.44	41.16	50.77	69.61	96.23	178.97	99.16
	일요일	696	4.54	10.49	25.79	50.86	35.92	42.67	45.88	54.02	73.66	96.26	185.79	99.43
	전체	3464	4.19	9.24	21.49	47.66	26.85	39.92	36.64	48.33	57.49	93.07	146.65	98.47

자료: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부부의 가족공유행동에 대한 공유시간량과 참여자비율을 각각의 시간유형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부부가 함께하는 행동이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하는 각기 다른 종류의 행동들은 부부의 감정적 결합정도나 개인들의 반응, 심리적인 반응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부가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 설거지를 하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음악을 함께 듣는 시간은 각기 다르게 부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부부가 가장 적게 함께 하는 행동은 가족보살피기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2분이 하, 남편홀벌이부부의 경우에는 5분 이하로 함께 공유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돌보기의 공유시간은 적은 시간이긴 하지만 맞벌이부부보다는 남편홀벌이부부의 공유시간이 모든 요일에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보살피기 공유행동 중 부부가 함께하는 행동은 적은시간이긴 하지만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보살피기 시간으로 나타난다.

청소, 빨래, 음식만들기, 쇼핑 등 가정관리 행동의 부부공유시간을 보면 남편들의 경우보다는 부인들이 인식하는 공유시간이 더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유되는 시간이 약간 더 높고 참여율도 남편들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55%정도가, 그리고 일요일에는 60%가 넘게 부인과 함께 가정관리활동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여성들은 45~50% 정도만이 남편과 함께 가정관리활동을 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인다. 또한 가정관리행동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가족공유행동은 대부분 음식준비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은 토요일과 일요일의 부부공유시간이 평일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부부가 교제 및 여가행동을 함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맞벌이부부의 경우 32%, 남편홀벌이부부의 경우 39%수준으로 나타나고, 공유시간량도 맞벌이부부의 경우 19분, 남편홀벌이부부의 경우 22분 정도에 불과하여 부부가 각자 수행하는 여가 및 레저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함께하는 교제 및 여가행동은 학습활동이 가장 많은 공유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의 공유시간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참여자비율이 40%정도이고, 홀벌이부부는 48%정도로 나타나는데 맞벌이부부의 경우 30분정도, 남편홀벌이부부의 경우 37분정도의 공

유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유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이용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공유행동은 대부분 인터넷이용시간이다. 부부공유시간으로 TV시청시간이 없는 이유는 통계청의 공유행동의 의미가 행동의 책임을 함께한 사람이라는 의미 때문이다.

부부의 가족 공유시간과 공유행동 참여자비율이 가장 많은 행동은 식사시간이다. 즉 맞벌이부부의 경우 80%이상이 남편홀벌이 부인의 경우 90%이상이 하루에 한번이라도 식사를 가족과 함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시간도 평일은 36분으로 공유행동시간 중 가장 많이 함께하는 행동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편과 부인이 함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에서는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행동인데 맞벌이남편은 78.22%가 가족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인식하는 반면 맞벌이부인은 86.35%가 함께 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홀벌이 남편은 79.19%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인식하는 반면, 홀벌이 부인은 93.07%가 함께 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6> 행동유형별 하루평균 부부의 가족공유시간

단위: 분

시간유형	시간분류	맞벌이부부		남편홀벌이부부	
		남편	부인	남편	부인
가족보살피기	미취학아이보살피기	0.10	0.15	0.29	0.25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1.32	1.34	3.40	3.06
	배우자보살피기	0.27	0.24	0.44	0.53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보살피기	0.21	0.25	0.36	0.35
	소계	1.90	1.98	4.49	4.19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16.69	11.06	15.02	11.08
	의류관리	2.27	2.54	2.49	3.37
	청소 및 정리	0.15	0.23	0.10	0.1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0.20	0.19	0.36	0.28
	집관리, 가정경영, 기타가사일	5.42	5.34	6.51	6.61
	소계	24.73	19.36	24.48	21.49
교제 및 여가	교제활동	1.98	1.81	2.68	2.64
	학습활동	9.48	9.32	9.64	9.96
	종교활동	0.19	0.22	0.54	0.50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3.04	3.17	3.43	3.54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3.32	3.27	4.76	4.75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3.61	3.52	5.75	5.46
	소계	21.62	21.31	26.80	26.85
미디어이용	신문, 잡지, 비디오, DVD, DMB, PMP, 라디오, CD	0.14	0.06	0.08	0.03
	인터넷정보검색 및 기타 인터넷활동	29.87	26.98	38.29	36.58
	소계	30.02	27.06	38.35	36.64
식사 및 간식	식사, 간식, 음료 등	38.32	45.21	40.02	57.49
총가족공유시간		116.59	114.91	134.14	146.65

자료: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전체적으로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이 가장 적은 시간은 가족보살피기 시간이며 다음은 가정관리시간, 교제 및 여가시간, 미디어이용시간, 가족과의 식사시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공유시간보다는 남편홀벌이부부의 공유시간이 가정관리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의 공유시간에 대한 맞벌이부부와 남편

홀벌이부부의 집단 간 차이는 <표 7>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7> 맞벌이부부와 남편홀벌이부부의 가족공유시간 차이

단위: 분(표준편차)

구 분	총가족공유시간		가족돌보기		가정관리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맞벌이부부	116.60(102.7)	114.91(97.2)	1.91(12.4)	1.98(12.8)	24.74(33.9)	19.36(31.8)
홀벌이부부	134.14(111.6)	146.65(103.8)	4.49(18.0)	4.18(17.3)	24.48(33.9)	21.49(34.5)
Significance of T-test(one-tailed)	52.71***	195.77***	56.61***	42.58***	0.11	8.15**
구 분	교제 및 여가		미디어이용		식사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맞벌이부부	21.62(51.9)	21.31(51.4)	30.02(49.3)	27.06(44.5)	38.32(32.9)	45.21(32.5)
홀벌이부부	26.80(55.9)	26.85(55.2)	38.35(55.8)	36.6(52.5)	40.02(34.1)	57.49(33.7)
Significance of T-test(one-tailed)	18.18***	21.24***	49.59***	77.23***	5.08*	269.41***

자료: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주: * p< .05, ** p< .01, *** p< .001

5. 결 론

맞벌이부부의 노동시간은 가정에서 부부의 가족공유시간을 남편홀벌이부부의 가족공유시간보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에게 식사를 함께하고, 여가와 오락을 함께 즐기는 시간이 남편홀벌이부부보다 적다는 것은 맞벌이부부는 홀벌이부부 만큼 같은 동료애 수준을 유지하고, 가족생활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부는 특별한 공유행동들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부부생활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분석을 통하여 맞벌이부부의 시장노동이 그들의 가족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부부가 노동자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 그들의 가족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유지시켜나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부부의 공유시간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부부 간 대화를 통해 그들 스스로의 관계를 정의하고, 가족 일을 결정하며, 상호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연구에서도 부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부부 간에 긍정적인 만족감과 혼인의 의미를 더욱 더 많이 생산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만족스러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Kalmijin & Bernasco, 2001).

또한 맞벌이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의 종류 또한 문제이다. 여가, 가사일과 같은 행동들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혼인의 만족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Kingston & Nock, 1987). 본 분석에서 맞벌이부부가 가장 많이 공유하는 행동은 식사시간과 미디어이용 시간으로 나타나고, 부부가 함께 하는 가족돌보기 공유시간, 가정관리 공유시간 등도 남편홀벌이부부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는 부부 중 남편이 수행하는 가족보살피기, 가정관리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맞벌이부부의 가족생활과 부부관계만족도에 남편홀벌이부부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맞벌이부부는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시장노동시간이 가족생활에 주는 제약(가정관리시간과 가족보살피기시간 등)을 벗어나기 위해 전체적인 부부의 공유시간은 적다고 할지라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행동에서의 공유시간은 더욱 늘려서 행동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는 여가시간을 덜 포기하기 위해 음식준비나 빨래, 청소 등의 일을 함께 할 수도 있으며, 어떤 부부는 가족일과 여가시간을 부부가 나누어서 수행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부족한 무급노동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무급노동 생활시간의 양은 너무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족이 점점 보편적인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는 남성의 생계부양자역할과 여성의 주부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주어지고, 자녀는 가계계승을 위한 도구적 지위가 강조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 대화가 필요하고, 심리적으로 감사하고, 동료애를 키우는 혼인생활로 규범이 바뀌어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Ulrich Beck & Beck-Gernsheim, 1990). 하지만 현재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맞벌이부부는 그러한 정서적 유대를 가족 안에서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가족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맞벌이가 필요해지고 있지만 배우자들은 점점 서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맞벌이부부에게 배우자 간에 친밀감과 정서적지지 없이 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맞벌이부부가 부부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홀벌이부부보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수 외, 2009, **일·가족·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딜레마**, 한울
- 김현주, 2008, **부부관계, 새로 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139-178
- 마경희, 2008, **맞벌이가구 젠더체제유형과 여성의 일-삶 경험의 차이, 가족과 문화 20(1)**, 한국가족학회: 131-160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8, **서울시 저출산관련 요인 및 정책수요조사**
- 안정옥, 2007, **시간의 정치와 생활세계: 제도의 시간, 관계의 시간, 삶의 시간, 가족과 문화 19(2)**, 한국가족학회: 171-204
- 이승미, 1997,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홍승아 외, 2009, **일-가족양립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2009, **생활시간 조사 원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사회통계조사, 인구동태통계**, www.kosis.kr
- D. K. Othner, 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37: 91-102
- M. Kalmijin & W. Bernasco, 2001, **Joint and Seperated Lifestyles in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3 :639-654
- P. W. Kingston & S. Nock, 1987, **Time Together among Dual-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2: 391-400

Robinson, John P. & Godbey, Geoffrey, 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Ulrich Beck & Beck-Gernsheim, 1990,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강수영 · 권기돈 · 배은경 옮김(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